

‘철학자 최진석과 함께하는 책 읽고 건너가기’ - 10월의 책 헤르만 헤세 ‘데미안’

“나는 나로 살아야 존재의 완성을 경험한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지와 사랑), ‘유리알 유희’, ‘수레바퀴 아래서’, ‘크눌프’, ‘싯다르타’ 등 헤르만 헤세(1877~1962)의 작품은 청춘의 시대를 관통해온 이들의 필독서였다. 사람들은 그의 소설 속 등장인물을 자신에게 대입해 보며 삶의 방향성을 찾고는 했다.

노벨문학상과 괴테상을 수상했던 헤세의 책은 6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됐으며 전 세계에서 1억 5000만부가 팔렸다. ‘시대의 지성’이었던 그는 조국 독일이 일으킨 세계대전을 비롯해 전쟁의 비인간성을 고발하는 글을 꾸준히 발표했으며 동화를 쓰고 자기만의 정원을 가꾸는 삶을 기록한 ‘정원일의 즐거움’을 펴내기도 했다. 특히 그가 남긴 3000여점의 수채화는 사람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며 위로를 전한다.

헤세의 수많은 작품 중 그가 1919년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으로 발표한 ‘데미안’은 시대를 초월한 성장 소설의 고전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출간 10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 온 ‘데미안’은 방탄소년단의 2집 정규앨범 ‘웍스’의 모티브가 되고 대표곡 ‘피 땀 눈물’의 뮤직비디오에 차용된 책으로 화제를 모으며 지금까지도 꾸준히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포진해있다.



헤르만 헤세 작 '호수골짜기의 풍경'

노벨문학상·괴테상 수상 작가
출간 101년 시대 초월한 성장 소설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 몸부림친다”
방탄소년단 음반 ‘웍스’ 모티브도
수채화 작품 3000여점도 남겨

“인간은 자기가 온전히 자기가 되는 순간 신성을 경험한다. 자기 안에서 자기가 신이 됨으로서 그는 자신만의 신화를 일구는 주인으로 이 세계에 등장한다.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 했다’는 첫 구절은 나는 나로 살아야 존재의 완성을 경험한다는 확신을 알려주는 문장이다. 인간은 보통 인간으로 완성되는 이 길에서 우왕좌왕하고 좌절한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방향하는 길 위에서 ‘너는 누구냐?’라는 환청에 시달린다면, 오히려 괴로워 말라. 이는 병이 아니다. 신이 되려는 고단한 여정에 네가 스스로 내리는 축복의 성스러운 종소리다.”

‘철학자 최진석과 함께하는 책 읽고 건너가기-광주일보와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10월의 책으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선정됐다.

“인간은 자기가 온전히 자기가 되는 순간 신성을 경험한다. 자기 안에서 자기가 신이 됨으로서 그는 자신만의 신화를 일구는 주인으로 이 세계에 등장한다.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 했다’는 첫 구절은 나는 나로 살아야 존재의 완성을 경험한다는 확신을 알려주는 문장이다. 인간은 보통 인간으로 완성되는 이 길에서 우왕좌왕하고 좌절한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방향하는 길 위에서 ‘너는 누구냐?’라는 환청에 시달린다면, 오히려 괴로워 말라. 이는 병이 아니다. 신이 되려는 고단한 여정에 네가 스스로 내리는 축복의 성스러운 종소리다.”

최 교수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다.



‘불안한 젊음에 바치는 영혼의 자서전’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데미안’은 주인공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 내면적인 성숙에 이르는 내용을 담은 치열한 성장의 기록으로 ‘한 인간이 자기에게로 이르는 길’이 담긴 책이다. 청춘의 고뇌와 인간의 양면성을 담고 있는 작품은 한편으로는 이미 젊음의 시절을 건너온 기성세대들에게는 시대의 흐름에 떠밀려 ‘스스로의 존재’를 잃어버린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싱클레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겉데기들, 내면의 무한한 세계를 찾아 떠나고, 그 혹독한 여정에서 자기 내면에 귀 기울일 것을 가르쳐주며 ‘너 자신만의 길을 가라’고 말하는 데미안을 만난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고 몸부림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라 사스다”라는 책 속의 유명한 문구처럼 시대를 초월한 ‘청춘’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알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데미안’은 다양한 번역본이 나와 있다. 헤세 탄생 140주년을 맞아 1919년 오리지널 초판본 표지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한 ‘더 스토리’의 패브릭 양장본에는 헤르만 헤세 대신 에밀 싱클레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문학동네, 열린책들, 민음사, 을유문화사 등 세계문학 시리즈를 펴내고 있는 출판사들은 모두 ‘데미안’을 출간했으며 표지를 바꾼 개정판들도 나왔다. 또 독일문학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 배수아의 ‘데미안’도 눈길을 끈다.

헤세의 인생과 작품에 대해 알고 싶다면 지난 7월 출간된 정여울의 ‘헤르만 헤세’를 권한다. 거장들의 삶의 흔적을 직접 찾아가는 ‘아르데 클라우드 시리즈’로 나온 이 책은 ‘헤세 덕후’를 자처하는 문학평론가 정여울이 독일의 칼프-가이엔호펜, 스위스의 몬타놀라를 걷고 거처서 만난 작품들에 대해 들려준다. 그밖에 문학동네판 ‘데미안’ 번역자이기도 한 안인희의 ‘우리가 사랑한 헤세. 헤세가 사랑한 책.들.’은 독서광이었던 헤세가 평생 쓴 3000여편의 서평 중 70편을 뽑아 엮은 글이다.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책 읽는 개그맨’ 고명환씨와 ‘데미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북토크’가 열린다. 토크 내용은 광주일보와 새말새꿈짓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또 11월 첫주에는 최 교수가 읽은 ‘데미안’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 작가 그림과 함께 광주일보 지면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신윤복 ‘미인도’ 공개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신국보보물전’ 11일까지 연장
온라인 관람 가능



신윤복 작 '미인도'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은 공동 기획 특별전 ‘새 보물 남시있네, 신국보보물전 2017-2019’ 전시를 오는 1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연장 전시기간 중에는 보물 제1973호인 ‘신윤복 필 미인도’를 다시 특별 공개한다. 조선 후기 화가 신윤복이 그린 대표 작품인 ‘미인도’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선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게 특징이다.

사상 최대 규모 국보와 보물을 선보인 이번 전시는 그 자체로 화제가 됐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국보와 보물을 만나 자긍심을 느꼈다” 등과 같은 호평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오기도 했다.

전시장을 직접 찾지 못하는 관람객들은 매주 전시 장면과 주요 전시품 등을 담은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전시를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과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화재청이 선정한 주요 전시품 30건은 다음 갤러리와 트위터, 블로그 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색의 계절 가을에 만나는 꽃과 정물

서양화가 고희자 개인전, 16일까지 LH 휴랑갤러리

서양화가 고희자(송원대학교 교수) 작가는 자연에서 위로를 받고, 자연에서 작품의 소재를 얻는다. 시간이 날 때마다 화구를 챙겨들고 야외 스케치를 나가고, 늘 곁에 두는 드로잉북에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피고 지는 꽃과 다양한 나무, 그리고 그 속에 함께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빼곡이 담겨있다.

고희자 작가가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LH 휴랑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최근 몇년간 편안한 느낌의 수채화 작품을 주로 선보였던 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는 유화 작품 15점과 수채화 10점 등 모두 25점을 선보인다.

오랜만에 선보이는 유화 작품은 진중하고 묵직하다. 그녀의 수채화가 맑고 투명하고 화사한 느낌 대신 조금은 가리앉은 색감과 변점으로 그윽한 느낌을

전해온 것처럼, 이번 유화 작품 역시 채도를 낮춘 색감과 자유로운 붓터치로 깊이감이 더해져 사색의 계절 가을과 어울리는 화면을 연출해 낸다.

또 파스텔 느낌의 부드러움도 더해져 안온함을 전하기도 한다.

전시작들은 정물과 꽃, 새, 인물 등을 소재로 삼았다. 붉은 석류와 꽃이 어우러진 정물화는 추상적인 배경 화면과 어우러져 색다른 느낌을 전하며 간략화 시킨 형태와 색채가 인상적인 꽃그림들은 보는 이에게 안식을 전한다.

또 화사한 꽃무리 속에 포즈를 취한 여인의 모습이나 사랑하는 딸 아이의 모습 등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작가가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다.

수채화 작품들은 물과 다채로운 색감이 어우러지

며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변점이 꽃들의 경계를 허물며 다양한 꽃무리를 만들어내는 게 특징으로 고 작가가 즐겨그리는 선인장 등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장에서는 아트상품도 제작해 선보인다. 꽃과 풍경 등이 어우러진 수채화 작품을 모티브로 한 에코백은 판매도 한다.

고 작가는 “매일 붓을 들고 놓으면서 자연 곳곳에 고여 있는 우리의 삶이 저마다의 색감으로 물드는 것을 바라본다”며 “그릴 때마다 달라지는 게 자연이어서 늘 새롭고 즐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조선대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고 작가는 한국미술협회 서양화분과 이사 등으로 활동중이며 지난 2016년부터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 대표 동인 ‘향토회’ 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 정동갤러리 초대전, 부산 타워 갤러리 초대전 등을 가졌다. 토·일요일 휴관. 문의 062-360-311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꿈 속의 꽃'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